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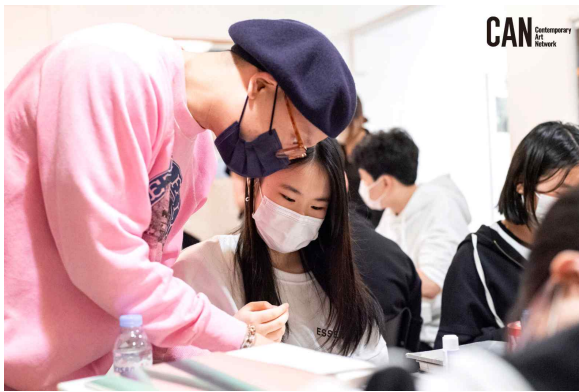
아트버스 캔버스

- 캔 파운데이션 두리하나국제학교(서울시 관악구)에서 예술창작수업 <아트버스 캔버스> 개최
- 현대미술작가와 함께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 청암문화재단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후원으로 이뤄져



- **캔 파운데이션**은 청암문화재단,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예술창작 프로그램 <아트버스 캔버스>를 두리하나국제학교 청소년들 및 현대미술 작가들과 2021년 10월부터 진행한다. <아트버스 캔버스> 프로그램은 국내외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현대미술작가들이 새로운 형태의 예술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수업이다.

- 본 프로그램을 통해 캔 파운데이션은 탈북 청소년들에게 작가의 의도와 표현방법을 심도 있게 감상하는 것은 물론,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미술에 대한 이해의



유나얼 작가 수업 <Collagearl> 진행 사진

폭을 확장시켜 현대미술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미술의 근간이 되는 ‘회화’와 ‘드로잉’을 기반으로 각자 다르게 작업하는 작가들의 작업을 경험하면서 다름을 이해하는 기회를 갖고 자신을 표현하여 그들의 삶에서 원동력이 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제공한다.

- 강사로 참여하는 유나얼, 안경수, 안상훈 작가는 현대 예술 분야에서 활발한



유나얼 작가 수업 <Collagearl> 단체 사진

작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회화, 드로잉 그리고 콜라주등 다양한 기법과 매체를 통해 작품을 제작한다. 캔 파운데이션은 작가들과의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언어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 청소년들의 숨은 잠재력과 창의력을 이끌어내어 진로 발달과 학습동기 부여를 제공하고자 한다.

-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한 캔 파운데이션은 예술가에 대한 지원과 예술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비영리 아트센터이자 사회적 기업이다. ‘아트버스 캔버스’를 통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66여곳, 332,547km를 달리며 110명의 미술가와 함께 6,294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예술창작의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 아트버스 캔버스
- 기간 : 2021.10.12 - 2021.12.28
- 참여작가 : 유나얼, 안경수, 안상훈
- 기획 및 운영 : 캔파운데이션
- 후원: 청암문화재단, 한국수출입은행

수업일자	장소	사진	
2021.9.8. 워크숍 집행	캔 파운데이션		
2021.10.13. 유나얼 작가	스페이스 캔		
2021.10.19. 안상훈 작가	두리하나국제학 교		



<오래된 집>, <스페이스 캔> 외관

컨퍼운데이션은 2008년 예술창작 지원을 목적으로 비영리단체로 설립되었으며 2011년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작가 발굴 및 지원, 해외교류 전시와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문화 교류 프로그램, 문화 확산 공공 프로젝트, 아트 버스 프로젝트 등을 운영을 통해 미술계의 공익을 추구하며 사회의 연대성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축적된 콘텐츠 사업으로 수익 구조를 창출하고 미술계의 새로운 유통시스템을 모색 하는 사회적 기업이며 이 수익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컨퍼운데이션의 각 프로젝트에 쓰이고 있습니다. 컨퍼운데이션은 예술가들의 활발한 전시 활동 지원을 위해 성북구에 위치한 <스페이스 캔>과 <오래된 집> 두 곳의 전시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